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b>강원도민일보</b>	28면	"바살협 진정성·실천 강원 발전 미래 밝히자"	1
<b>江原日報</b>	27면	"강원 지역사회 발전에 매진·헌신적 봉사 앞장"	1
<b>江原日報</b>	02면	새로운 강원자치시대위 출범	2
<b>강원도민일보</b>	15면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출범... "특구 시군 조율안 ...	2
<b>江原日報</b>	02면	국내 최초 드론·UAM 시험평가센터 첫 삼	3
<b>江原日報</b>	03면	"조례도 없이 방위산업協 발족... 절차 무시"	3
<b>강원도민일보</b>	11면	전임도정서 8년간 열린 '강원도 GTI박람회' 없앤다	4
<b>MBC 강원영동</b>	온라인	도의회, '강원자치도 인구 정책 조례안' 등 36건 처리	4
<b>노컷뉴스</b>	온라인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27년 동결 소방공무원 출동간식에...	5
<b>G1방송</b>	온라인	강원소방 출동간식비 27년만 3천→4천 원 인상	6
<b>세계타임즈</b>	온라인	양숙희의원, 재난안전실 예산심사에서 "가정 내 안전점검 1...	7
<b>시사일보</b>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의원, 재난안전실 예산심사에서...	8
<b>매일일보</b>	온라인	김희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유아동네숲터' 조성...일부개...	9
<b>노컷뉴스</b>	온라인	김희철 강원도의원 '도심 유아숲 조성' 추진	10
<b>강원경제신</b>	온라인	이승진 의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	11
<b>문화매일</b>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	12
<b>정도일보</b>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	13
<b>my 明報日報</b>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	14
<b>위클리오늘</b>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 발의, '한복입기 활성화 ...	15
<b>스포츠서울</b>	온라인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	16
<b>江原日報</b>	온라인	[동정] 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17
<b>江原日報</b>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7
<b>강원도민일보</b>	01면	강원 의료붕괴 위기 속 의료비 2조원 시대 열렸다	18
<b>강원도민일보</b>	03면	늘어가는 강원도 늘어나는 진료비 ... 의료 불평등 해소 시...	18
<b>강원도민일보</b>	14면	'산으로 바다로 출·퇴근' 강원도 워케이션 인기	19
<b>강원도민일보</b>	18면	강원-경기 7개 지역 '공동 경제권' 구성 협약	19
<b>江原日報</b>	01면	'기업도시 시즌2' 혁신파크...최적지 꿈히는 춘천	20

江原日報	02면	영월~삼척·포천~철원 고속道 협력 요청	21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강원외 가치 글로벌 공유시대 연다	22
江原日報	25면	[사설] 빛으로 버티는 자영업 '졸파산' 예고, 대책 세워야	23
江原日報	25면	[사설] 도내 잇따른 산불 발생, 비상대비 체제 갖출 때	24

# 강원도민일보

## “바살협 진정성·실천 강원 발전 미래 밝히자”

바르게살기운동 도협 한마음대회  
1300명 참석 국민포장 등 수여  
“내년도 예산 2억6000만원 편성”



2023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회원 한마음대회가 23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윤장훈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윤장훈)가 주최하고 춘천시협의회(회장 황병철)가 주관한 2023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회원 한마음대회가 23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렸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함께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한마음대회에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심재섭 영월군의회 의장, 김혁성 원주시의회 의원과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회원 1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원우 바르게살기운동 삼척시협의회 회장이 국민포장을, 진옥동 도협의회 감사, 권순천 철원군협의회 여성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장관 표창 17명, 도지사 표창 11명, 도의장 표창 10명이 수상했

다. 윤장훈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특별자치도 회장은 대회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회원도 강원지역의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축사에서 “내년에 처

음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강원에서 유치하는 것에 성공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원활한 대회유치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에 내년도 예산 2억6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회원은 그동안 나눔과 배려를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는데 앞장섰고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환영사에서 “여러분들의 진정성과 실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 우리 강원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지역보다 밝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재혁

# 江原日報

## “강원 지역사회 발전에 매진·헌신적 봉사 앞장”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는 23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회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심재섭 영월군의회장, 박형배 도새마을회장, 안정희 도여성단체협의회장, 이강근 춘천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윤장훈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장과 황병철 춘천시협의회장을 비롯한 18개 시·군협의회장, 회원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우 삼척시협의회장은 정부 포상인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03년 바르게살기 신기면위원회에 입회, 20여년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 저변 확산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옥동 도협의회 감사와 권순천 철원군협의회 여성회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황병철 춘천시협의회장 등 17명은 행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회원 한마음대회 1,300여명 참석  
이원우 삼척시협의회장에 국민포장 등 시상·감사패 전달



◇2023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회원 한마음대회가 23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윤장훈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지사 표창 단체 부문 수상의 영광은 양구군협의회에 돌아갔고, 최돈수 원주시협의회 산악회장 등 10명은 도지사 표창 개인 부문을 받았다. 김성

위 동해시협의회 청년회 간사 등 10명은 도의장 표창을 수상했고, 60여명의 회원이 바르게살기운동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협의회는 김진태 도지사, 육동한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

달했다. 이날 행사는 위즈스 댄스 스포츠, 그룹사운드, 트로트 가수 김수찬의 축하공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윤장훈 회장은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를 전하고 지난 1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해오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며 “내년 강릉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권혁열 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민간운동으로 뿌리내렸다”며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회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회원 여러분의 진정성과 실천이 있기 때문에 춘천과 강원자치도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다. 권순찬·황민진기자

# 江原日報

## 새로운 강원자치시대위 출범

김진태 도정과 도민 소통 확대를 위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가 23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에서 창립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최삼규 전 국민일보 사장, 부위원장은 한만우 전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선출했다.

강원시대위원회 위원은 도민이 정책 입안과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18개 시·군민, 출향도민, 전문가 등 10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강원시대위원회는 도 주요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도정 발전을 위해 도 주요 정책 수립 방향 제시, 새로운 정책 발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등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창립회의가 23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창립회의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최삼규 전 국민일보 사장이 선출됐다. 박승선기자

# 강원도민일보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창립회의가 23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출범... "특구 시군 조율안 마련을"

민선 8기 정책자문·도민소통 기구  
시대위 5개 분과·107명 위원 구성

민선8기 정책 자문 및 도민 소통 강화 기구인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춘천 스키이컨벤션에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창립회의에는 김진태 지사와 권혁열 도의회의장, 김기홍·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는 이날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신임위원장엔 최삼규 전 국민일보 사장이, 부위원장엔 한만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위원회는 5개 분과(행정교육·사회문화·농림수산·경제산업·안전건설) 10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진태 지사는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특구의 시·군 조율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지사는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군이 모두 지정해달라 줄서면 우환 덩어리가 굴러 오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게 위원회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

김덕형

# 국내 최초 드론·UAM 시험평가센터 첫 삽

(도심항공교통)

02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중·대형 급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시험평가센터가 원주에 들어선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건립사업 착공식이 23일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내 현장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황형주 강원일보 원주본부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권오광 도경제진흥원장, 김정윤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회장, 강인선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290억원을 들여 6,416㎡의 부지

### 원주 부론산단서 착공식 열려 290억 투자 내년 12월 완공 비행안전 인증·기술 등 지원

에 지상 4층, 연면적 3,290㎡ 규모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센터에서는 드론, UAM 등 미래항공 모빌리티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안전을 위한 시험평가와 인증,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론산단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건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강릉원주대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했다.

원주시는 센터를 통해 관련 기관과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는 등 원주가 미래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센터를 기반으로 원주를 드론클러스터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미래기술시대를 맞아 첫 단추를 잘 채운 만큼 원주를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자”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가 미래항공 모빌리티산업을 선

도하는 첨단 국방과학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강원자치도와 손잡고 미래 4차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세종 원장은 “강원자치도, 원주시, 대학, 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주지역에서 인재가 육성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홍 부의장은 “원주를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에 도의회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며 이재용 시의장은 “지금의 선택이 원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것이라 생각하고 시의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

# “조례도 없이 방위산업협 발족... 절차 무시”

03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자치도가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방위산업협의회(본보 지난 22일자 7면 보도)를 발족, ‘조례 제정권’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3일 ‘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면서 조례 통과 전에 위원회 구성이 이미 진행돼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조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산업협의회는 도의 방위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국방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자문하는 기구다. 지난 21일 김진태 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등 총 1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무철(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협의회 필요성은 모든 도민과 의원이 공감할 것이나 무효한 행정행위 아니냐”며 “조례 통과 여부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협의회 위원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용 도경제국장은 “협의회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고 또 올해 안에 마무리해보니 마음이 급했다.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 도의회 경산위 질타 “지급된 여비 환수해야”... 道 “마음이 급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지원 조례는 폐지, 일부 우려 목소리

이한영(국민의힘·태백) 도의원은 “위원들에게 지급된 여비는 환수해야 한다. 단순히 행정적 착오라는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고,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도의원 역시 “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오류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산위는 이날 ‘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

성 및 지원 조례 폐지’를 원안 가결했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박람회는 2013년부터 동북아 무역, 물류 확대를 위해 진행됐다.

박윤미(더민주·원주) 의원은 “8년 이상 이어왔고 더 공격적으로 키울 만한 사업이라고 본다. 도를 대표하는 행사 중 하나였는데 단칼에 조례까지 폐지하는 것을 보니 행정이 단

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최기용 경제국장은 “러시아, 중국과 접촉이 어려워지는 등 정책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기존 바이어들 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기홍(국민의힘·원주) 부의장도 “명칭을 바꾸거나 개정하면 되지 잘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없앤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김기철(국민의힘·정선) 경제산업위원장은 “조례는 폐지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 사업을 모색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한영기자 together@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는 2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도 재년인전 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박승선기자

# 강원도민일보

## 전임도정서 8년간 열린 '강원도 GTI 박람회' 없앤다

11

도의회 경산위 폐지 조례 가결  
사업 중단에 일각 부정적 의견  
도, 조례 없이 방위산업협 추진  
"의회 패싱" 못매 안전 의결 보류



박윤미 김기홍 이한영

전임 도정에서 8년 간 진행됐던 강원 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류인출 임미선

또, 최근 발족된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협의회가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 '의회 패싱'이 지적되며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에서 못매를 맞았다.

이 어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도의회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3일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의 사업 중단에 부정 의견을 내놨지만, 이 사업의 폐지 조례를 가결했다.

경산위원들은 이날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조례 심사도 전에 이미 사업이 추진된 점을 질타했다. 강원도는 지난 21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도방위산업협의회를 발족시킨 가운데 위원들에 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위는 해당 조례 의결을 보류했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8년간 끌어왔던 박람회"라며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도지사 방침이 섰다고 폐지하는 건 행정이 (사업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홍(원주) 의원은 "예산 투입 대비 수출 견수 등 실적이 좋다"며 "명칭의 뜻을 바꿔서라도

이한영(태백) 의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든다. 신규 공무원도 아니고 국장이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통비 지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기획행정위에선 강원연구원 내년도 출연금이 53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비 22.2% 증가하는 데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8억여원 남아있는 상황에 산이 늘어 전년 대비 예산 증가가 42%"라며 "연구원장 업무추진비도 상향됐다"고 말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건축재정 기조인데, 증액의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한수도 기획조정실장은 "시, 군에도 출연금을 올렸으니 수탁을 줄이고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라고 전했다"고 답했다. 이철화·양유근

이철화·양유근



## 도의회, '강원자치도 인구 정책 조례안' 등 36건 처리

김인성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6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정책 및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사회문화위원회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등 11건 등 6개 상임위에서 모두 36건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도의회는 내일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25건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2023 11 23 ( )

노컷뉴스

##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27년 동결 소방공무원 출동간식예산 인상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중인 강원 소방대원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 의원)가 장기간 동결돼 온 소방공무원 출동간식 예산 인상을 결정했다.

안건위는 23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27년간 3000원에 머물렀던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를 4000원으로 인상했다.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는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출동 대원이 야간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 날 9시 사이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출동시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연간 11만여 건, 3억 3천만원이 지출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연간 1억 1천만원 증액을 통해 4000원으로 인상했다.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내년 예산이 세수부족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도 '아낄 데는 아끼지만 쓸 데는 쓴다'는 김진태 도지사의 결단과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성사된 것으로 4천여 소방공무원의 해묵은 숙원이 해결된 것 같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2023 11 23 ( )

G1방송

## 강원소방 출동간식비 27년만 3천→4천 원 인상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G1NEWS

### 강원소방 출동간식비 27년 만 '3천→4천 원' 인상

주요뉴스

- 각급시립미술관과 지역자가 저시 지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27년 동안 3,000원으로 동결됐던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를 4,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인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를 1억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는 야간시간대인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현장 출동 시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11만 여건, 3억3천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2023 11 23 ( )

## 세계타임즈

# 양숙희의원, 재난안전실 예산심사에서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사업추진 문제 지적”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양숙희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23일 (목) 진행된 재난안전실 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형 사회적 보호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였다.

강원형 사회적 보호자 육성사업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기·가스·건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제작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가점검 후 경품 제공 등 이벤트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은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6,0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1억 1,200만원 대비 5,200만원(△48.6%)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내역은 가정내 안전점검 100% 달성추진을 위한 자율점검표 제작비가 당초 6,500만원에서 61.5% 감액된 2,500만원, 재난 취약계층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 2,000만원에서 50%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음을 지적하며 예년 수준의 예산편성을 요청하였다.

양 의원은 “자율점검표는 도내 75만세대에 한번에 일괄적으로 배부되어 시행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내년도 세입결손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이에 양원모 재난안전실장은 “사업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23 11 23 ( )

## 시사일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의원, 재난안전실 예산심사에서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사업추진 문제 지

전영선 기자



### ▲ 양숙희의원(안전건설위, 춘천6)

[시사일보=전영선 기자] 양숙희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23일 진행된 재난안전실 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형 사회적 보호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

강원형 사회적 보호자 육성사업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기·가스·건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제작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가점검 후 경품 제공 등 이벤트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은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6,0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1억 1,200만원 대비 5,200만원(△48.6%)이 감액 편성됐고 주요 감액 내역은 가정내 안전점검 100% 달성추진을 위한 자율점검표 제작비가 당초 6,500만원에서 61.5% 감액된 2,500만원, 재난 취약계층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 2,000만원에서 50%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됐음을 지적하며 예년 수준의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자율점검표는 도내 75만세대에 한번에 일괄적으로 배부되어 시행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내년도 세입결손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에 양원모 재난안전실장은 “사업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 11 23 ( )

## 매일일보

# 김희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유아동네숲터’ 조성…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황경근 기자

가까운 공원 등을 활용, 숲교육을 위한 유아놀이터 조성



김희철 의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도의원(춘천2)은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한 숲유아놀이터인 ‘유아동네숲터’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23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5,000㎡ 미만의 소규모 공간의 자연친화적 숲놀이터인 ‘유아동네숲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41개 운영 중이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숲지도사가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숲을 체험·탐방·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기존 조례상 5,000㎡ 이상의 규모에만 설치할 수 있어,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유아동네숲터는 유아숲체험원보다는 규모가 작고 인공조형물은 없지만, 도심에 조성하는 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방문하여 숲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김희철 의원은 “숲은 아이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체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아이들은 숲에서 뛰어 다니며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의 안정을 경험하며 자연의 소중함도 알게 될 것이다”며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도심에 조성하여 유아를 둔 가족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동네숲터는 서울시, 부산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 중에 있다.

2023 11 23 ( )

노컷뉴스

## 김희철 강원도의회 '도심 유아숲 조성' 추진

핵심요약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주도  
5천㎡ 미만 소규모 공간 자연친화적 숲놀이터 '유아동네숲터' 조성 가능



김희철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김희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춘천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개정안은 5천㎡ 미만의 소규모 공간의 자연친화적 숲놀이터인 '유아동네숲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아숲 체험원을 41개 운영 중이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숲지도사가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숲을 체험·탐방·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기존 조례상 5천㎡ 이상의 규모에만 설치할 수 있어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김희철 의원은 "숲은 아이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체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아이들은 숲에서 뛰어 다니며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의 안정을 경험하며 자연의 소중함도 알게 될 것이다.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도심에 조성해 유아를 둔 가족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31

2023 11 23 ( )

## 이승진 의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강명옥



### ▲ 이승진 의원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수정가결 후, 상임위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조례 개정 이유로 조례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맞게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 신설을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 관련 조항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항 변경 및 약칭 정비, 공문서 작성 및 평가, 정책 등의 명칭 관련 조항 변경 및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진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우리말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 문화매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이등원 기자



### ▲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문화매일신문=이등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수정가결 후, 상임 위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조례 개정 이유로 조례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맞게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 신설을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 관련 조항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항 변경 및 약칭 정비, 공문서 작성 및 평가, 정책 등의 명칭 관련 조항 변경 및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진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우리말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2023 11 23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조례 마련 됐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3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구체적 운영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 및 보안 관련 관청과의 상호협력에 관해 교육장 및 학교장에 책무를 부과하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엄기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급 학교에 17,600여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되어 학교 당 평균 23대 꼴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기기 운영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기준을 따랐으나 안전·보안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 안전에 대한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1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15일(금)에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조례 마련 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김정현 기자



### ▲ 엄기호 의원(철원2)

[명성일보=김정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3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구체적 운영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 및 보안 관련 관청과의 상호협력에 관해 교육장 및 학교장에 책무를 부과하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엄기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급 학교에 17,600여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되어 학교 당 평균 23대 꼴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기기 운영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기준을 따랐으나 안전·보안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 안전에 대한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1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15일(금)에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2023 11 23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 발의,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종성 기자

[강원 위클리오늘=박종성 기자]

위클리오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 발의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통문화 계승·발전 목적 ‘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한복을 일상적으로 즐겨 입는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한복 입기 권장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의 날 지정 ▲한복 입은 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한복 입기를 활성화하고 일상에서의 한복 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k-컬처가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가미된 콘텐츠가 드라마와 웹툰 등을 통해 각광받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일상에서는 한복이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한복 입기 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상에서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넘어서, 도내 문화콘텐츠 사업과 도 관광 사업으로까지 한복의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 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성 기자 wknews005@daum.net

2023 11 23 ( )

## 스포츠서울

###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한복을 일상적으로 즐겨 입는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복 입기 권장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의 날 지정 한복 입은 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한복 입기를 활성화하고 일상에서의 한복 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k-컬처가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가미된 콘텐츠가 드라마와 웹툰 등을 통해 각광받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일상에서는 한복이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한복 입기 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상에서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넘어서, 도내 문화콘텐츠 사업과 도 관광 사업으로까지 한복의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 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3 11 23 ( )

**江原日報****[동정] 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24일 오후 5시 주문진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3년 강릉시 어업인 한마음 대회 개최식에 참석.

2023 11 23 ( )

**江原日報****[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24일 오후 5시 주문진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3년 강릉시 어업인 한마음 대회 개최식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5일 오전 8시30분 속초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회 속초보광병원 이사장배 축구대회 개최식에 참석.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25일 오후 4시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홍천 팸스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에 참석.

# 강원도민일보

## 강원 의료붕괴 위기 속 의료비 2조원 시대 열렸다

01



강원도민 여러분 **밤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일보·강원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동기획

### 빅데이터 기반 지역의료 진단 고령화 대응 프로그램 필요 지적

강원도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 고령화에 대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군(郡) 단위 지역의 의료 인프라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올해로 창간 31주년을 맞이한 강원

도민일보는 강원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의료진단기획, '강원도민 여러분 밤새 안녕하십니까'를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 강원도민들의 건강 실태와 각 지역 의료 인프라를 지역언론과 지역병원, 기관이 진단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강원도민들의 고령화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7년 연간 1조5352억9100만원이던 도내 전체 진료비는 2023년 상반기(1~6월)까지는 1조4295억8656만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강원도 노령화지수는 2017년 145.9명에서 2022년 208.6명으로 증가했다.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역사회에서 고령화에 대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진료를 받

는 의료이용 자제충족률도 심각하다. 도내 18개 시군의 전체 의료이용 자제충족률은 64.4%로, 입원의 경우 평균 27%, 외래는 65%로 나타났다. 자체충족률 문제는 군 단위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극명히 나타났다. 춘천, 강릉, 원주의 경우 지역내 이용 가능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있어 각각 90.5%, 90.1%, 89.5%의 자체충족률을 보였지만 도내 하위 3곳인 고성, 정선, 양양의 경우 각각 40.5%, 41.4%, 42%를 기록했다.

특히 고성군과 양양군에는 입원병상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 자체충족률은 0%로 집계됐다.

김정호  
▶관련기사3면

# 강원도민일보

## 늘어가는 강원도 늘어나는 진료비... 의료 불평등 해소 시급

03



강원도민 여러분 **밤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일보·강원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동기획

### ① 강원도 의료비 2조원 시대

지난해 강원도민들이 수도권 빅5 병원에 지출한 금액은 약 1975억원. 2013년 833억원과 비교하면 9년새 137% 늘어난 규모다. 이와 맞물려 강원도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체충족률은 평균 64.4%에 불과하다. 입원 평균은 27%까지 떨어진다.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듯 질병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강원도민들은 어떤 질병에 노출돼 있을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올해로 창간 31주년을 맞이한 강원도민일보는 강원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강원도내 최초 건강 프로젝트 '강원도민 여러분 밤새 안녕하십니까'를 집중 보도, 강원도민들의 건강실태를 집중 분석한다. 강원도 의료비 2조원 시대, 강원도 의료비 지출규모를 파악하고 질병 불평등 끝에 내몰린 군(郡) 단위 현실을 조명한다. 지역 수요와 압박자인 의료인력 확충 역시 해결이 시급하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이번 '강원도민 여러분 밤새 안녕하십니까'는 의료 취약지 강원현실을 조명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다.

강원도내 의료비가 연 2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코로나19와 고령화가 맞물린 결과다. 의료비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다루는 내과나 정형외과에 집중, 급속도로 전개되는 강원도의 고령화가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와 강원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강원도내 의료비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17년 1조5352억9100만원이던 도내 전체 진료비는 다음해인 2018년 1조6908억2800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에도 1조8662억6100만원으로 늘면서 2018년과 2019년 모두 증가율이 약 9%로 기록,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역시 1조8866억610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2021년 의료비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의료비는 2조153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더욱 증가해 2조6039억1192만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 상반기까지는 1조4295억8656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강원도 노령화지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노령화지수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 조사결과 강원도의 경우 노령화지수는 2017년 145.9명에서 2018년 155.7명으로 늘었고 2019년 166.4명, 2020년 179.4명,



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 진료비 중 약 30.8%인 6165억5900만원이 내과 진료비였으며, 10.6%인 2116억8700만원은 정형외과 진료, 7.4%인 1490억5000만원이 치과 진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역시 강원도 진료비 지출의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19~2021년까지 강원도 다빈도 상병 진료비 1위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3년치 진료비를 모두 합친 금액이 302억800만원이었는데 2022년 다빈도 상병 진료비 1위인 코로나19의 진료비는 819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가관별로 진료비를 살펴봤을 때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치과 등은 전년도 대비 의료비가 연평균 각 17.3%, 6.7%, 6.1% 등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종합병원과 보건기관의 경우에는 -7.5%, -3.3% 등으로 감소했다.

종합병원과 보건기관의 경우 2019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진료건수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도내 진료비 상승은 코로나19, 고령화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고령화로 인한 중증환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진료비 증가는 현재 강원도 의료 문제에서 초래된 결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이나 재입원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kimjho@kado.net

**도민 원정진료 9년새 137%↑**  
**수도권 빅5지출 2000억원 육박**  
**의료혜택 자체 충족률 64.4%**  
**노령화지수 증가 200명대 돌파**  
**만성질환 탓 의료비 상승 견인**  
**"고령화 중증환자 대책 필요"**

2021년 192.4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에는 결국 208.6명으로 200명대를 돌파했다.

강원도의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를 견인했다. 강원도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진료건수와 진료비 모두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적었으며 가장 많은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발생한 연령은 모두 70세 이상이었다. 내과 진료나 정형외과 진료비중도 높게 나

# 강원도민일보

2023 11 24 ( )  
14

## ‘산으로 바다로 출·퇴근’ 강원도 워케이션 인기

직장인 1112명 대상 설문조사  
휴양지 체류·강원지역 선호↑  
도, 특화 관광상품 개발 주력

강원특별자치도 워케이션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원하는 형태가 ‘휴양형(지역체류형)’이 절대 다수를 차지, 강원자연경관과 결합한 상품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11월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강원도의 경우 19.5%로 제주(31.8%) 다음으로 높아 전국 17개 시·

도 중 두 번째로 워케이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 이어 서울(18.8%), 부산(14.2%), 경기(6.2%)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0%가 워케이션을 희망한다고 답변해 향후 전망도 매우 밝은 것으로 분석됐다.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업무를 보는 근무 형태를 뜻한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 등 일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선호하는 워케이션 형태에 대한 응답으로 산, 바다 등 휴양지에서 업무를 하고 퇴근 후 휴식을 취하는 ‘휴양형

(지역체류형)’이 74.9%, 도심 호텔에서 서부대서비스를 즐기며 휴식하는 ‘도심형’이 21.2%, 다양한 농촌 체험 활동을 병행하는 ‘농촌·전통체험형’이 3.5%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수려한 ‘자연환경’적 요인이 강원지역 워케이션 인기·선호도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2021년부터 국내 주요 여행사와 연합해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워케이션 특화 상품전을 운영, 2023년에는 여기어때, 웹투어, 투어비스와 함께 판매했다.  
지난 3월 16일~6월 30일 진행된 강원 워케이션 특화상품기획전은 총 5만 8142박이 판매됐으며 전년 대비 24%가 증가, 3박 이상은 11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속초, 강릉, 고성, 정선, 평창이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태백, 동해, 고성도 전년 대비 평균 87%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릉, 동해, 속초, 영월, 정선, 고성 6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대상 워케이션도 운영하고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워케이션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며 “최근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워케이션에 대한 지원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선우 woof6745@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3 11 24 ( )  
18

## 강원-경기 7개 지역 ‘공동 경제권’ 구성 협약

북부내륙권 행정협 첫 정기회의  
춘천시 등 생활인구 체제 가동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개발 등  
인구소멸 위기 극복 협력 다짐



춘천시를 비롯한 강원 6개 지역과 경기도 가평 등 모두 7개 시·군이 총 54만 명 규모의 생활인구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교육과 복지, 문화의 자원을 나누고 공동 경제권을 형성,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선다.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첫 정기회의가 23일 오전 춘천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백창석 춘천부시장, 오흥수 흥천부군수, 박경우 철원부군수, 박유식 양구부군수, 배상요 인제부군수, 최병길 경기 가평부군수, 최수명 화천군 기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첫 정기회의가 23일 오전 춘천시청에서 백창석 춘천부시장, 오흥수 흥천부군수, 박경우 철원부군수, 박유식 양구부군수, 배상요 인제부군수, 최병길 경기 가평부군수, 최수명 화천군 기획감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획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백창석 부시장이 행정협의회장에, 최병길 가평부군수가 부회장에 선출됐다.  
이번 회의에서 각 지자체는 △구성 시·군 교류 활성화(춘천) △소양호 뱃길관광 사업(춘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홍천) △춘천-철원 간 중양고속도로 연장사업(철원) △국도56호선 개량 사업(화천)

△국도46호선 4차로 확장 사업(양구) △동서고속화철도 연계지역 개발사업(인제) △고향e음시스템 유지관리비용 부담 개선(가평) 등 제안 사업에 대해 논의, 진행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 실현을 위해 공동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시군 간 행정교류와 주민 간 협력도 강화

하기로 했다. 7개 시·군의 인구는 모두 54만 명 규모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교육과 복지, 문화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경제권을 형성, 분절된 행정의 벽을 넘어서기로 했다. 인구소멸로 준립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육동한 춘천시청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된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춘천시에서 협약식을 개최한 이후 규약제정, 지방의회 보고와 고시, 행정안전부·강원특별자치도·경기도 보고를 끝내고 구성을 완료했다.  
백창석 춘천부시장은 “북부내륙권 시·군 간 협의회를 결성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기회의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협의회 목표가 북부내륙권 메가시티인 만큼 밀도 높은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현 tpgus@kado.net

2023 11 24 ( )

# 江原日報

01

## ‘기업도시 시즌2’ 혁신파크... 최적지 꼽히는 춘천

### 내달 전국서 최소 2곳 선정

시, 광관리 일원 9,364억 투입  
정밀의료·IT 등 첨단도시 구현  
입주 기업 세제 등 파격적 혜택  
지자체 7곳 치열한 경쟁 벌여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경쟁의 막이 올랐다.

12월 중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춘천을 비롯해 전국 7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기업 경쟁력과 부지 확보,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 춘천이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기업혁신파크에는 기업 맞춤형 신도시가 조성되고 창업기업 법인세 100%, 이전 기업 50%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9,364억 투자-춘천 광관리에  
첨단 신도시 조성=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를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재편한 모델이다. 기존 기업도시의 인센티브는 유지하고 개발 조건과 규제는 더욱 완화해 신속한 개발과 투자를 유도한다. 특히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연 매출총액 2,5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중량급 앵커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춘천시는 더존비즈온, 신한은행과



‘첨단산업도시의 꿈’ 영글어 간다 제2의 기업도시를 꿈꾸는 춘천시 남산면 광관리 일대를 23일 드론으로 바라본 모습. 춘천시는 이미 조성된 남춘천산업단지 건너편에 368만㎡ 규모로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남덕기자

함께 춘천시 남산면 광관리 산 68번지 일원 368만㎡에 9,364억원을 투입해 디지털시티, 개방형 산학협력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시와 더존비즈온이 이미 전국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정밀의료, 바이오, IT 및 데이터 산업을 집적화한 첨단도시를 구현한다.

■‘7:2+α’ 경쟁, 기업 경쟁력 앞선 춘천 최적지=정부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춘천+더존비즈온을 비롯해 7곳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2곳을 지정할 계획이

다. 다만 1곳가량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IT 대기업으로 꼽히는 더존비즈온의 참여로 앵커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춘천이 단연 앞서 있다는 분석이다. 춘천의 사업부지(368만㎡)는 최소 지정 조건(50만㎡)의 7배에 달한다. 특히 경사 15도 미만의 개발이 용이한 부지가 55%에 이르고 32%가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돼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 단연 최적지라는 분석이다.

또 사업모델에 대한 더존비즈온의 운영 결과 비용대비이익(B/C)이 1.

19에 달해 높은 사업성을 보였다. 이미 356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힌 상태다.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와 3분 거리로 수도권과 30~40분 거리다.

유력한 경쟁 상대는 경북 포항, 경남 거제, 충남 당진 등이 꼽힌다. 당진은 SK렌터카를 앵커 기업으로 자동차·물류산업도시, 포항은 이차전지와 수소 산업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발표 카운트다운=기업혁신파크 발표는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춘천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

한 서면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에는 현상심사가 예고돼 있다. 이후 12월 초 발표 평가 및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발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춘천시는 현상심사는 발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춘천시의 공조하고 있으며 지원 사격을 약속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의 개념을 살려 앵커 기업과 춘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조성 전략을 함께 마련했으며 춘천이 최적지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최기영·정윤호기자

## 江原日報

2023 11 24 ( )

02

## 영월~삼척·포천~철원 고속도 협력 요청

김진태 지사-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면담

속보=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영월~삼척, 포천~철원고속도로 등에 대한 협력(본보 23일자 1면 보도)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강원지역 국가도로망 계획 997.2km 중 절반 이상인 52%, 519.1km 구간이 아직 착수도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또 '영월~삼척 구간 예타 통과'를 위한 공동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개통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천~철원 고속도로, 속초~고성 고속도로 사

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강원권역 미개설 구간 우선 반영도 건의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교통과 관광의 확충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시작인 만큼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영월~삼척 예타 선정 등 도내 고속도로 현안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도내 대형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경제성 부족의 이유로 빈번히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

# 강원도민일보

2023 11 24 ( )

/ 17

## 사설

### 강원의 가치 글로벌 공유시대 연다

강원도민일보 창간 31주년 기념일인 11월 26일을 앞두고 오늘 기념호를 발간했습니다. 31년간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 속에 오늘 9310호 기념호를 발행하기까지 성원해 주신 도내외, 국내외 곳곳의 독자와 강원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지면을 통해 창간 31주년 기념 특집 기사를 다룬 것과 동시에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 양대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동영상 뉴스와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강원, 전국, 세계를 연결하는 영역에서 내로라하는 미디어 매체로 성장하게 된 것은 오로지 독자와 도민 관심과 애정 덕분입니다.

창간 31주년을 맞아 심층적으로 보도한 이슈는 만성적인 의료인력 불균형 수급과 수도권 의료인력 유출로 인한 해도민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는 공공의료 붕괴 의제입니다. 제대로 응급조치가 이뤄지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꺼져가는 현실을 진단하고 확충 대안을 심층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생활과 경제, 문화에 빠르게 스며든 인공지능(AI)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에 대해 탐구하며 지혜롭게 변혁기를 맞을 수 있는 지혜를 모색했습니다. 여행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강원야경맛집' 여행 지도는 관광콘텐츠 다양화 요구에 부응한 것입니다.

도내 곳곳에서 활약하는 기자들의 열정으로 심층 연재된 기획기사가 창간 기념 달인 11월을 맞아 '2023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지역신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다시 쓰는 폐광지역 리포트'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 보도가 동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소양강댐' 기획물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도민들이 지역에서 부닥치는 어려움과 역윤한 사정을 발로 취재해 밝혀냄으로써 정책의 변화를 불러오는 성과를 거뒀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시민 가까이 찾아가겠습니다. 현장성을 살리는 취재로 지지분권, 균형발전이 구현되는 특별자치시대를 열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뉴스로 지역의제를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 가지 방향에서 더욱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콘텐츠 강화로 중장년, 노년세대는 물론 청년세대를 아우르며 지평을 넓힐 것을 약속합니다. 강원도민일보는 일찌감치

멀티미디어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디지털국신설로 강원 곳곳에서 생되는 뉴스 현장을 실시간 영상과 메타버스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 양대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구독자를 늘려왔습니다. 강원의 가치를 전국적,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토대로 개인 실생활에 요긴한 뉴스부터 지역 미래를 움직이는 담론 의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둘째 특별자치시대를 맞아 여러 육구가 분출하면서 빈약한 생활시설 및 경제기반을 둘러싼 굵직한 난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장 도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공공의료 붕괴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으로의 생산계층 이탈, 빈집 급증과 인구 급감으로 생활기반 약화가 대표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가계 고통이 커지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경기에 그늘이 드리

웠습니다. 관광에 치우친 현재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낮은 수준의 급여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삶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심점을 잃어가는 기존 지역산업을 대체한 첨단산업 및 제조산업이 시급하게 보완되도록 지역경제 사안을 수면 위로 올려 특색경제로 전환되도록 심층취재와 공익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난제를 해결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에 이은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생활과 경제, 사회와 문화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결정하고,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상력 없이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생형형 인공지능에 의한 지식생산에 대해 해방기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창작인 사이에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최신기술이 사회변화를 이끄는 변화흐름에 강원이 처하지 않도록 선구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지역사회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입니다. 강원지역 전 시·군을 망라하며 큰 격려와 지지 그리고 기대와 성원 속에 탄생한 강원도민일보는 이제 다시 창간 1주년을 맞는 각오로 '도민을 생각하는 신문, 도민이 사랑하는 신문'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창간정신을 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땀을 다짐합니다.

강원도민일보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지역사회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입니다. 강원지역 전 시·군을 망라하며 큰 격려와 지지 그리고 기대와 성원 속에 탄생한 강원도민일보는 이제 다시 창간 1주년을 맞는 각오로 '도민을 생각하는 신문, 도민이 사랑하는 신문'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창간정신을 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땀을 다짐합니다.

견제와 감시로 도민 이익 지켜내는 특별자치 동반자로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콘텐츠 강화로 전세대 소통 강화 공공의료 붕괴, 경기 침체 난제 이겨내는 에너지 갖 인공지능 첨단기술 전환 시대 여는 선구적 언론 약속

# 江原日報

2023 11 24 ( ) / 25

## 빛으로 버티는 자영업 '줄파산' 예고, 대책 세워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서민 경제를 대표하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근 2년 사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영업자들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끌어 모은 다중채무가 4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이다. 채무자 수도 5만5,000명에 육박하면서 고금리 시대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줄파산'이 예고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돼 오지 않기를 바라는 편이 나왔을 것이다. 빛을 버티다 보니 다중채무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도내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2021년 2분기 11조5,000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동기 14조7,000억원으로 28.6% 늘었고, 올해 15조4,000억원으로 더 늘어났다. 최근 2년간 증가율은 34.6%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2011년 이후 2~3%대의 낮은 성장에 머무른 데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불청객으로 역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이 많아지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시장 여건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 선진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높은 것은 기술 활용 이외에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꺼이 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도 자영업자가 생산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음식, 소매, 이·미용 등의 가격 상승을 사회적으로 공감, 용인하는 분위기가 절실하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Value)가 적절한 가격(Price)으로 평가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름값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는 경제 주체다. 이들이 생사 기로에 섰다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작은 점포나 공장의 폐업은

경영자와 가족의 파산을 뜻한다. 문을 닫거나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 재창업이나 전직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재기

**도내 다중채무 4조원, 전국 두 번째 증가율**  
**“모럴 해저드 막은 보완장치 전제로**  
**연체 이자 탕감·원금 감면 등 조치 있어야”**

하기도 힘겨운데 가능하겠는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 침체로 공공대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 없이 물러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 프로젝트로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

금융 당국과 금융사가 서둘러 적극적인 자영업자 금융 비용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때를 놓친 후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와 취약한 상환 능력을 고려할 때 이대로 방치하다가 자칫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모럴 해저드를 막는 보완장치를 전제로 연체 이자 탕감과 원금 감면 등의 적극적인 자영업자 부실 채무 경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江原日報

2023 11 24 ( )

/ 25

## 도내 잇따른 산불 발생, 비상대비 체제 갖출 때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1일 오후 2시22분께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의 한 사유림에서 불이 나 산림 0.03 ha를 태우고 40여분 만에 꺼졌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낮 12시24분께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의 한 야산에서 전투기 사격 훈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또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에서도 지난 18일 오후 6시39분께 주택 화재의 불길에 인근 사유림으로 옮겨붙기도 했다. 현재 도내 산간지역은 산불이 언제라도 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조성되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낙엽 등이 바짝 마른 데다가 강풍이 부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겨울철이지만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간지역에서 산불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미 기상 상황이 대형 산불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기상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작은 불씨로도 순식간에 큰불이 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그 어느 때보다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고비를 잘 넘겨 더는

단 한 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겨울철에는 화기 취급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산불은 한 번 나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다.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뿐 아니라 50~60년을 가꿔 온 산림자원을 일순간에 잿더미로 만든다.

해마다 크고 작은 산불에 따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산림청과 소방 당국, 지자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불이 날지는 알 수 없다. 화재를 부르는 건 순간의 부주의다. 일체의 산불 유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예방법은 없다. 산불은 초기에 불길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 산불을 진화하려면 주민들의 즉각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다. 산림 당국이 아무리 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해도 주민들의 관심과 경계심이 없이는 산불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산림청과 소방서, 지자체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불 비상대비체제를 갖춰야 한다.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관심을 쏟지 않는다면 화재는 막을 수 없다. 불조심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대부분 화재가 인재라는 점에서 아무리 경각심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